

# 경찰서 풀어준 성폭행 혐의자 피해자 납치 차사고 함께사망

1994. 3. 10

## 거짓 고소취하장 받고 석방

거짓 고소취하장을 경찰에 내  
풀려난 성폭행혐의 피의자가 자신  
을 고소한 여대생을 납치해 사흘  
동안 끌고다니다 남퍼리지 밑의  
승용차 안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  
된 사실이 9일 뒤늦게 밝혀졌다.

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 
이아무개(21·여·○전문대2)씨를  
성폭행한 혐의로 김기선(26·무직)  
씨를 붙잡아 조사하다 피의자쪽이  
거짓으로 작성한 고소취하장을 받  
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26일 오후  
김씨를 풀어줬다.

김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뒤인  
지난 3일 이씨를 서울 송파구 잠  
실본동 자취방에서 납치해 부산  
해운대 2095 렌터카에 태워 끌고 다니  
다 5일 오전 11시께 충북 단양군  
단성면 외종방리 투구봉 주유소

부근 30m 아래 남퍼리지에 차가  
추락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.

이들이 숨진 곳은 왕복 2차선  
도로 옆 남퍼리지로 사고차량은  
단양에서 제천 쪽으로 달리다 50  
cm 높이의 오른쪽 철제 보호벽을  
들이받은 뒤 추락했다.

경찰은 김씨가 고의로 차를 남  
퍼리지로 몰아 동반자살했을 가능  
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.

이에 앞서 경찰은 친고죄인 성  
폭행 사건의 경우 고소인 본인의  
직접 진술을 들은 뒤 고소취하장  
을 접수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런  
규정을 무시한 채 피의자쪽이 거  
짓으로 작성한 고소취하장을 받아  
김씨를 석방했다.

경찰에 제출된 고소취하장은 피  
의자 김씨의 어머니가 이씨를 협

박하게 풀어달라,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범죄,

박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. 고  
소취하장이 접수된 뒤 이씨는 경  
찰 조사에서 “김씨의 어머니가 미  
리 작성해온 고소취하장을 내밀며  
‘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들한테 성  
폭행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 
폭로하겠다’고 협박해 도장을 찍  
어주었다”고 진술했다. 이에 따라  
경찰은 다시 김씨에 대해 구속영  
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고소취하  
장 반복 경위를 조사하라며 재조사지  
휘를 내려보냈다.

경찰은 2일 이씨를 다시 불러  
고소취하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  
고 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씨  
의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김씨는  
이미 3일 오후 이씨를 자취방에서  
납치해 종적을 감춘 뒤였다.

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92  
년 친구소개로 알게 된 이씨를 짝  
사랑해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거  
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9

월 이씨 자취방에 침입해 성폭행  
했으며 그 뒤에도 “가족에게 알리  
겠다”고 협박해 성폭행해온 것으  
로 밝혀졌다. 이씨는 지난 8일 다  
한항공에 입사할 예정이었다.

강남서 도상길 형사과장은 이에  
대해 “고소인의 직접 진술을 듣지  
않고 피고소인쪽이 제출한 고소  
취하장을 접수한 것은 명백한 실  
수”라며 “이로 인해 이런 사건이  
빛어질 줄은 몰랐다”고 말했다.

경찰은 이 사건을 ‘공소권 소멸  
을 이유로 9일자로 종결처리했다.

## 10대2명 부부살해뒤 방화

서울 서부경찰서는 9일 가정집  
에 들어가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 
금품을 털 뒤 집에 불을 지르고  
달아난 장아무개(16·서울○고2)군  
등 10대 2명을 붙잡아 강도살인  
및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 
했다.